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

전 형준* 강윤경**

국문초록

동성애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한국교회 및 한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경적상담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무엇인가? 둘째,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무엇인가? 셋째,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동성애에 관한 일반적 이해에서 동성애에 관한 심리학계의 인식은 죄로 보지 않고 사회적 인식으로 보았고, 인권을 앞세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둘째,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이해에서 동성애는 명백한 죄로 취급하여 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동성애에 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에서 1) 사랑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를 만나기 2)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하기 3)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받아주기 4)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믿어주기 5) 존중, 경청, 초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기. 후속 연구로서는 동성애자들을 면접, 설문하여 분석하여 객관적 증거를 얻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동성애, 복음주의상담, 긍휼의 마음, 가정 사역, 성령

• 논문 투고일: 2017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7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12일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 본 연구는 기독교학술원에서 발표한 후, 『동성애, 21세기문화충돌』 (서울: 킹덤박스, 2016)에 실렸던 논문을 수정하였으며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연구임.

I. 여는 글

김영한은 “오늘날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좌파 페미니즘이 산출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로 인해 심각한 문화적 혼돈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 여성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¹⁾고 한 것은 옳은 지적이다. 여기서 젠더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즉 사회적, 문화적으로 길들여진 성이며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통칭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특정성에 부합되는 젠더의 특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그 방향으로 사회화 시킨다. 페미니즘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비판하여 생물학적 성이 사회적 성인 젠더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부과된 것이란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²⁾ 과연, 그렇다.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는 영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쇠퇴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지금 한국교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상대주의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동성애 운동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이란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한때, 미국사회에서 급격히 확산되었던 동성애 문제는 미국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중대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대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성애의 이슈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성애는 유전

1)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문화충돌』(서울: 킹덤북스, 2016), 11.

2)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문화충돌』, 11-12.

인가 선택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심리학적으로 동성애는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학적으로 동성애는 성적 행동의 정상적 변형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 본성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가? 하는 것이다.³⁾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을 통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의 응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혁주의신학 및 복음주의신학에 근거를 둔 성경적 상담학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이해는 어떤 것인가?

둘째,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어떤 내용인가?

셋째,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의 내용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수행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상담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복음주의상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동성애에 관한 일반적 이해

1) 동성애에 관한 선행연구

동성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있어왔다. 먼저, 동성애 유발 유전자의 존재여부에 관해서는 1993년에 Hamer 등은 40가정을 조사하여 X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군(Xq28)과 남성 동성애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

3) Jeffrey Satrner, *Homosexuality and the Politics of Truth* (Grand Rapids, MI.: Baker, 1996), 18.

가 있다고 발표 하였다.⁴⁾ 그들은 논문에서 동성애는 99% 이상 유전이라고 주장하였고, 서구 언론은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하였다고 대서특필 하였다. 1999년에 Rice 등은 Xq28에 존재하는 표지 유전자를 조사 하였다.⁵⁾ 2005년에는 Hamer를 포함한 Mustanski는 456명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과 동성애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후에, Xq28은 동성애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⁶⁾ 1993년 조사에서 Xq28이 남성 동성애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반면에, 2005년 조사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얻은 이유는 1993년 조사에서 선택한 표지 유전자의 간격이 좁고 텔로머(telomer)에 가까웠기 때문 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2005년 연구는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관련 유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0년에 Ramagoparan 등은 112명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하여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동성애관련 유전자가 없다고 밝혔다.⁷⁾ 2012년에 Drabant 등은 23874명(이성애자 77%, 동성애자 6%)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한 결과, X 염색체에서는 물론 전체 게놈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⁸⁾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동성

-
- 4) D. H. Hamer, S. Hu, V. L. Magunuson, N. Hu, &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1993): 321.
- 5) G. Rice, C. Anderson, N. Risch, & G. Eber,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kers at Xq28," *Science* 284(1999): 665.
- 6) B. S. Mutanski, M. G. Dufree, C. M. Ni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2005): 277.
- 7) S. V. Ramagoparan, D. A. Dymant, L. Handunnetthi, G. P. Rice, & C. G. Ebers, "A G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2010): 135.
- 8) E. M. Drabant, A. K. Kiefer, N. Eriksson, J. L. Mountain, U. Francke, J. Y. Tung, D. A. Hinds, & C. B. Do,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n a Large, Web based Cohort," Presented at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nual meeting Nov. 6-10 (San Francisco, 2012).

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와 일반인의 두뇌 차이에 관해서는 1991년 LeVay가 죽은 사람의 두뇌 전시 상하부의 간질 핵 크기를 조사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는 INAH3는 여자처럼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으므로, INAH3이 동성애와 연관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 하였다.⁹⁾ 2001년에 Byne 등이 INAH3 내의 신경 세포 개수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현저히 많았으며,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LeVay 결과에 반론을 제기하였다.¹⁰⁾ 결과적으로 동성애가 두뇌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모두 번복되었고, 동성애자의 두뇌가 일반인과 달라서 두뇌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가 태아기의 호르몬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연구에서 Meyer는 남성동성애자와 남성이성애자의 호르몬 수치를 조사하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¹¹⁾ Murphy는 동성애자에게 강제를 성호르몬을 주입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Kwan은 성호르몬은 성욕을 감퇴시키거나 상승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동성애 경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발표 하였다.¹³⁾

9) S. Levey, "A Difference of Hypotalamic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1991): 1034.

10) W. Byne,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er, M. A. Edgar, S. Mogello, M. S. Bucksbaum, & L. B. Johnes,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ertalamus: An Investigation of Variation with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2001): 86.

11) H. F. L. Meyer-Bahlburg, "Psychoendocrine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 Currant Status and Future Options," *Progress and Brain Research* 61(1984): 375.

12) T. F. Murphy, "Redirecting Sexual Orientation: Techniques and Justifications," *Journal of Sex Research* 29(1992): 501.

13) M. Kwan, W. J. Greenleaf, J. Mann, L. Grapo, & J. N. Davidson, "The Nature of Androgen Action on Male Sexuality: A Combined Laboratory Self Report Study

형이 많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연구로 Blanchard는 소위 ‘형 효과’에 대한 생물학적 해석은 산모가 아이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동성애의 성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¹⁴⁾ 즉, 첫째 남아를 가졌을 때에 산모의 신체에 생긴 남성에 대한 항체가 둘째 남아의 뇌에 영향을 주어 동성애 성향을 갖게 한다는 논리이다. 산모의 신체에 생성된 항체가 남성의 특이한 단백질에 반응하면, 가장 남성기인 고환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그로인해 정액의 질이 나빠지고 고환에 질병 증상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Sanders의 연구에 의하면 동성애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태아의 뇌를 공격했다면 읽고 쓰는 언어적 학습장애 증상도 발생해야 하는데 남성 동성애자는 오히려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¹⁵⁾ Cantor에 의하면 첫째 아들인 남성 동성애자, 여자들만 있는 남성 동성애자는, 여자 동성애자 등은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없고, 전체 동성애자의 약 17%만이 형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형 효과가 옳다면 동성애 유발 원인이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은 설득력이 없다.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Cameron은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남성 동성애자의 15%만이 결혼을 하므로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이미 사라졌어야 한다.¹⁶⁾ 1994년 Lauman의 조사에서 14~16세의 청소년기를 어디에서 보

Hypergonadal Men,”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57(1983): 577.

14) R. Balanchard & A. F. Bogaert, “Homosexuality in Men and Number of Old Broth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1996): 27.

15) G. Sanders & M. Wright, “Sexual Orientation Differences in Cerebral Asymmetry and in the Performance of Sexually Dimorphic Cognitive and Motor Task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1997): 463.

16) P. Cameron, T. Lendess, & K. Cameron, “Homosexual Sex as Harmful as Drug Abuse, Prostitution or Smoking,” *Psychological Reports* 95(2005): 915.

냈느냐와 지난 일 년 동안 동성애 파트너가 있었는지를 물어 보았다.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았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았다.¹⁷⁾ 2006년 Frisch도 2006년 덴마크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시에서 태어난 자가 시골에서 태어난 자보다 더 많은 동성애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는 자란 환경, 즉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이다. 1991년 Bailey의 조사에서 남성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일란성 쌍둥이 52%, 이란성 쌍둥이 22%, 다른 형제 9.2%, 입양된 형제 11%로 나타났다.¹⁸⁾ 이 결과는 동성애가 유전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Jones는 이러한 결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잡지와 신문을 통해서 표집대상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동성애 쌍둥이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응모하여 동성애 일치 비율을 증가 시킨 것으로 추정 하였다.¹⁹⁾ 2000년에 Kendler 등이 미국인 1512명의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친 비이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녀를 통틀어서 일란성 쌍둥이가 18.8%였다.²⁰⁾ 또한, 2000년에 Bailey는 호주인 3782명의 동성애의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11.1%, 여성 13.6%였다. 2010년에 Langstrom은 스웨덴인 7652명을 대상으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성 9.9%, 여성 12.1%이었다.²¹⁾

17) E. O. Laumann, J. H. Gagnon, R. T. Michael, &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4), 61.

18) J. M. Bailey & R. Phillard, "A Genetic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8(1991): 1089.

19) S. L. Jones & M. A. Yarhouse "Science and Ecclesiastical Homosexuality Debates," *Christian Scholar's Review* 26, no.4(1997): 446.

20) K. S. Kendler, L. M. Thornton, S. E. Gilman, & R. C. Kessler, "Sexual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2000): 1843.

21) N. Langstrom, Q. Rahman, E. Carlstrom, & P. Lichtenstein,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2010): 75.

통계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으므로 일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은 약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수치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증거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증상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으며, 복음주의 상담의 역할이 증차대함을 보여준다.

2) 동성애 인식에 대한 변화의 흐름

1987년 수정판(DSM-III-R)에서는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여 동성애를 진단하는 범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동성애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문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행하여 고급 문명의 상징처럼 여겨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경우, 동성애는 로마제국의 멸망을 경고하는 부도덕과 타락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역사의 대부분은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중세이후 18세기까지도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범죄로 취급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특히, 북미, 중남미, 유럽 등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동성들 간에 표현되는 사랑이나 성행위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²²⁾

최근 동성애에 대한 변화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동성애 조항을 DSM-II에서 삭제 했고, 동성애를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성적 지향의 장애”라는 범주로 대체 하였다.²³⁾ 이러한 결정은 전문가들에게 동성애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심지어 현재도 일부 정신의학자들

22)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1), 43-72.

23) 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I*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44.

은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정신신경학적 질환의 환자가 되기 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학계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동성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서 이들을 차별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라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²⁴⁾ 더 나아가 동성애자에 대하여 인권차원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동성애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일반인들도 동성애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동성애에 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1964년부터 동성의 성인들 간의 성행위가 서로 동의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 범죄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리스도연합교회는 1972년에 게이 남성을 최초로 성직자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개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²⁵⁾

3) 한국사회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에서 동성애가 이슈로 나타난 것은 1995년 6월 26일 한국내의 동성애자들 집단회원들이 설립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법 30조 2항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고, 2002년 3월, 국가인권위는 직원 공채 시에 처음으로 동성애자 한사람을 채용하였다. 2002년 7월에는 당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이었던 고종주원장이 생물학적인

24) S. Gordon & C. Snyder,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Allyn & Bacon, 1986).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택해진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25개주에서는 성인들 간에 동의하에 발생하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던 법을 폐지하였다.

25)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 편, 『조각하늘 동성애바로알기』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15), 12-13.

원인과 관련 없이 심리적 정체성 장애를 수용하고 성전환자의 호적등본상 남녀 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성소수자들도 이성애자들처럼 행복추구권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씨가 2002년 12월 11일 법적으로 성전환자임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좋지 못한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신앙에 바탕을 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동성애를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죄로 인식하고 있다.²⁶⁾

4)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애문제를 교회와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성직인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교회와 강력히 반대하는 교회로 양분된다. 즉, 동성애의 문제가 기독교회 안에서 신학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공동체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예배공동체이다. 교회의 신앙인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자가 있고 반면, 성경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왜곡되 나 사람을 사는 사람도 없지 않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동성애의 문제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즉 동성애가 개인의 문제이면서 가족의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²⁷⁾ 가족이나 교회가 동성애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²⁸⁾

26)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 편, 『조각하늘 동성애바로알기』, 19-21.

27) E. Wilson, *Counseling & Homosexuality*, 남상인 역, 『동성연애상담』 (서울: 두란노, 1996), 233.

28) Wilson, 『동성연애상담』, 233-234.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교부 시대 초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도덕 철학자들은 동성애 행위를 비난해왔다.

(1) 교부시대: 타락하지 않기 위해 거리두기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동성애라는 주제에 몰두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독교 도덕 철학자들은 일부 동성애 행위가 너무 심각했기에 자신들이 이 문제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초기 교회지도자들은 동성애 행위를 분명히 거부 했다.²⁹⁾

교회가 처음으로 비난했던 대상은 남색이었다. 로마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이 관습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바나바서신』(*Epistle of Barnabas*) 같은 초기 문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간통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색하지 말라. 어떤 부정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³⁰⁾

교회내 회의 역시 동성애에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엘비라 공의회(Council of Elvira, 305–306)에 모였던 교회지도자들은 소년들을 더럽혔던 남성들에게 죽을 때까지 성찬을 금하기까지 하면서 공식적으로 남색을 정죄했다.³¹⁾ 로마사회의 부도덕을 보면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기독교도덕 철학자들은 정숙한 삶이야말로 신약성경이 호소하는 결혼생활의 핵심이라고 확신했다.³²⁾

이와 마찬가지로 교부시대는 동성애를 다른 성범죄와 동일 선상에 두고 경고했다.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훈육 규

29) Richard B. Hays, “Relations Natural and Unnatural: A Response to John Boswell’s Exegesis of Romans 1,”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4, no.1(1986): 202.

30) James A. Kleist,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6., eds. Johannes Quasten & Joseph C. Plumpe (New York: Paulist Press, 1948), 19.4.

31)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179.

32) Stanley J. Grants, *Welcoming but not Affirming*, 김대중 역,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114.

례를 통해 이 죄가 간음보다 더 악한 간통에 비견될 만큼 중하고 살인이 나 배교 보다는 경하다고 판단했다.³³⁾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오스를 포함해 여러 도덕 철학자들은 레위기의 성결법안에 있는 금지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³⁴⁾

이처럼 바울을 좇은 많은 교부는 동성애 행위를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정죄 하였던 것이다.

(2) 중세시대: 공식적으로 정죄하는 교회

동성애 행위에 대한 교부시대의 다양한 가르침은 중세에 이르러 그 행위를 반대하는 교회의 공식 견해로 굳어졌다. 이런 양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³⁵⁾

한 가지 공식 견해 표명은 회개한 범법자에게 용서를 선포하는데서 나타났다. 이는 참회 규정서(Penitentials)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규정서는 간통과 간음 같은 중대한 죄악 뿐 아니라, 사소한 위반, 곧 자위나 부적절한 자세의 성교를 포함해 다양한 성적 범죄 목록을 보여 주는데, 그 중에는 동성애 행위가 있다. 이 지도서는 단순한 동성끼리의 입맞춤으로부터 레즈비언의 행위, 남성끼리의 성교를 아우르는 다양한 동성애 행위를 구분했다.³⁶⁾ 이것은 중세의 영적 지도자들이 동성애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세가 도래하기 전까지의 동성끼리의 성행위는 특히 성직자들과 수도원에서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8세기에 샤를마뉴는 황제가 되면서 수도원을 개혁하려 했다. 수도원이 동성애 범죄에 대하여 느슨해지고 있다

33) Grants,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115.

34) David F. Wright, "Homosexuals or Prostitutes? The Meaning of *Arsenokoitai* (1 Cor. 6:9; 1 Tim 1:10)," *Vigiliae Christianae* 38, no.2(1984): 127-128.

35) Grants,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117-118.

36) David F. Greenberg,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265.

고 믿었기 때문이다.³⁷⁾

중세가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점차 도덕적인 사안을 염려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독신이어야 했던 당시 성직자들에게 동성애 행위는 특별히 염려되는 문제였다.³⁸⁾

Thomas Aquinas의 글을 보면, 중세는 현대 이전까지 동성애 행위에 관하여 가장 섬세하게 도덕적 논쟁을 펼쳤던 시대로 여겨진다. 아퀴나스는 동성애 행위를 정욕의 6가지 유형(간음, 간통, 근친상간, 성적 유희, 강간)안에 넣었는데, 이것들은 성행위의 올바른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였다. 6가지 중에서 동성애 행위는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졌다.³⁹⁾ 이렇게 하여 Aquinas 이후에 동성애 행위를 특별히 중대한 죄로 간주하게 되었다.

(3) 종교개혁이후의 분위기: 거부와 재고

종교개혁이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종교개혁초기에는 성윤리의 중요 쟁점이 동성애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지 않았다. 오히려 수조사와 수녀로 독신 서약을 한 이들이 이제는 결혼할 자유가 있는지가 중요했다.⁴⁰⁾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본문을 이해하는 그대로 순종하려는 헌신적 태도가 있었기에 교회지도자들은 이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보여야 할 때면 항상 동성애 행위를 정죄했다.⁴¹⁾ 종교개혁으로 생겨났던 교단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동성애 행위를 악하다고 보았고, 일부 교단은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37) Boswell, *Christianity*, 177-178.

38) Greenberg,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280-292.

39)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Westminster, MD.: Christian Classics, 1981), II-IIQQ: 153.2-3, 154.1, 154.11.

40) Grants,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122-123.

41)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15-20: Luther's Works*, vol. 3., trans. George V. Schick, ed. Jaroslav Pelikan (St. Louis: Concordia, 1961), 3:225.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반대를 강화했다. 로올라의 이나시오는 동성애 행위에 연루된 성직자와 수도사를 질책하는데 동의하였고, 평신도든 성직자든 습관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출교하였다.⁴²⁾

종교개혁이후 많은 서구 국가는 동성애 행위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Calvin이 있는 제네바나 청교도가 있던 뉴잉글랜드에서 동성애 행위는 불법이었다.⁴³⁾ 1750년에는 두 동성애자가 파리에서 공개 처형되었다. 비록동성애자 사형제도가 1861년 영국헌법에서 없어졌지만 동성애 간 성행위를 금하는 법령은 1967년까지 유효 했다.⁴⁴⁾

그러나 결국 변화의 조짐 이 나타나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와 표트르와 예카테리나 재위 기간의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관용하는 분위기가 일어났다.⁴⁵⁾

이렇듯 종교개혁시대에는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로 일관되다가 관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동성애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교회는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 복음주의 목회상담사역을 하면서 성령께서 동성애자를 변화시키는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 성령하나님의 개입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 동성애자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그의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42) Grants,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122.

43) John Cotton, *An Abstract or the Law of New England* (London, 1641), 11.

44) Peter Coleman, *Gay Christian: A Moral Dilemma* (London: SCM Press, 1989), 2-3, 126-128.

45) Arno Karlen, *Homosexuality: A New View* (New York: W. W. Norton, 1971), 134-138.

2.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이해

동성애에 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함께 동성애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원리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개혁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신학적 이해

Kevin DeYoung은 그의 저서 *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about Homosexuality?*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⁴⁶⁾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이루어 졌다. 그렇다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었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창조 되었을까?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그가 혼자인 것을 보시고 그에게 적합한 배필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그들의 역할을 알려 주고자 첫 번째 사람을 이용해 두 번째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유일하게 적합한 존재임을 보여주 고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 하셨다. 이 명령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이 서로 결합 할 때에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새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신분을 나타냈다.⁴⁷⁾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성간의 정상적인 결혼과 성적관계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창조 하셨다.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바에

46) Kevin DeYoung, *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about Homosexuality?*, 조계광 역,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서울: 지평서원, 2015), 31-40.

47)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31-32.

따라, 교회는 한결같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 맺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다. 이 말씀에 대하여 DeYoung 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를 언급하며, 이 제도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요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여자가 창조된 방식이 남자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보여 준다(창 2:21-22). 둘째, 한 몸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성을 지닌 두 인격체임을 전제한다(창 2:24-25). 셋째, 성이 다른 두 인격체만이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신 25:5-6). 넷째, 예수님이 친히 창세기 1장의 규범적 성격을 강조 하셨다. 다섯째, 결혼 한 부부가 서로를 보완하는 결합을 이루어야만 결혼의 거룩하고도 상징적인 의미, 곧 구속사적인 의미가 빛을 발한다(창 1:1; 계19,21,22장; 엡 5:31-32).⁴⁸⁾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시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창조질서 가운데 남녀 간의 이성애의 원칙을 세우신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언급은 모두 여섯 곳에서 발견된다. 창세기 19장 1-8절,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로마서 1장 18-32절, 고린도 전서 6장 9-10절, 디모데전서 1장 9-10절 등이다. 위의 성구들은 해석학적 토론의 여지가 있으나,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⁴⁹⁾

창세기 19장 1-8절은 동성애를 언급하는 처음의 성경 기록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성경적근거로서 널리 인용되는 성경구절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본문으로 동성애 행위로 인한 성적인 타락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신 역사적 사실이다. 창세기 1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관하

48)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31-40.

49) C. Wenham, “The Old Testament Attitude to Homosexuality,” *The Expository Times* 102 (1991): 360-362.

리라”(창 19:5)로 번역된 동사 “아다”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확실하다(창 4:1,17,25; 24:16).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 그 도시가 파괴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세기 19장에서 기록된 사건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롯은 어느 날 성문에 있다가 낮선 사람들을 발견했다. 롯은 그들에게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무렵, 소돔 사람들이 노인과 젊은이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와 두 여행자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 롯이 손님들을 내주지 않고 그 대신에 처녀인 두 딸을 내주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더욱 난폭해졌다. 그들은 급기야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하였고, 바로 그 순간 두 손님들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문을 닫고는 문 밖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창 19:1-11). 그렇다면 소돔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9장은 폭력적인 집단 강간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정리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적 범죄의 대명사였다. 에스겔서의 기록(겔 16:49)과 유다서(유 1:7)의 기록을 ‘부자연스러운 욕망’이란 표현을 고려할 때, 소돔은 일반적인 성적범죄는 물론이고 동성애의 죄로 유명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를 많이 저질렀다. 동성애의 관습은 그들이 저지른 죄 중의 하나였다.⁵⁰⁾

레위기의 두 성구는 동성애를 직접 표현한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하셨고,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말씀 하셨다. 레위기의 기록은 도덕적 거룩함과 관련된 것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50)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43-50.

레위기의 두 구절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제기 되었다. 첫째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이 무슨 죄를 금지 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금지 조항이 더 이상 모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인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레위기에는 ‘거룩함’ 또는 ‘거룩함’ 이라는 말이 87번 사용된다. 즉 거룩함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다. 레위기 18장은 가정생활과 성적인 활동에 관한 거룩함을 다룬다. 단지 악한 것, 즉 근친상간은 악하다(레 18:6-17), 아내를 질투하게 만드는 일은 악하다(레 18:18), 월경으로 불결한 기간에 성관계 맺는 것은 악하다(레 18:19), 간음은 악하다(레 18:20), 자녀를 죽이는 것은 악하다(레 18:21), 동성애는 악하다(레 18:22), 수간은 악하다(레 18:23)와 같은 기본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로 부정해진다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되게 된다(레 18:24-30).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은 죄를 묘사하면서 창조 질서를 상기시킨다. 본문은 ‘남자가 여자와 동침 하듯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고 못 박는다.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둘 다 가중한 일을 행함 인즉” 이란 표현은 동성애 행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과 소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모두 단죄하는 표현이다.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했다. 그러므로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했던 것이다.⁵¹⁾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자명하다. 그것은 레위기에서 금하는 동성애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마 5:17-18; 고전 6:9; 딤후전 1:10; 고전 5:11; 6:18; 10:8).⁵²⁾

신약성경에서는 먼저 로마서 1장 26-27절에 나타난다. “이를 인하여

51)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54-56.

52)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57-63.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붙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 붙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27). 이 구절은 ‘창조 질서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⁵³⁾ 바울은 동성애를 창조질서의 타락이며 왜곡이라고 규정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라고 보고 정죄한 말씀이다. Greg L. Bahnsen은 이 구절이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정죄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이라고 보았다.⁵⁴⁾

인간의 부패함은 세 가지 그릇된 현상을 통해 나타난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인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리석은 우상숭배로 바꾼 것이다(롬 1:21-23). 둘째는 경건하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조물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였다(롬 1:24-25), 셋째는 이성간의 성행위를 버리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롬 1:26-27).⁵⁵⁾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롬 1:28-32).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메시지는 천국에 합당치 못한자 중에 ‘동성애자’가 있음을 말씀한다. 바울사도는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성경의 원리를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윤리를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5, 6장에는 고린도 신자들의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죄들이 열거되어 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말라코이: *malakoi*)나 남색 하는 자(아르세노코이타이: *arsenokoitai*)”(고전 6:9)에 대하여 언급한다. 여기서 말라코이를 사용한 ‘탐색하는 자’는

53) John Murry,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7), 47-48.

54) Greg L. Bahnsen, *Homosexuality: A Biblical View*, 최희영 역, 『성경이 가르치는 동성애』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0), 54.

55)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65-76.

부도덕한 성관계를 맺는 자를 의미한다. 두 단어 모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남자를 가리킨다. 동성애는 축하할 복이 아니라 회개하고 탈 동성애하여 용서 받아야 할 죄이다.⁵⁶⁾

디모데전서 1장 9-10절은 율법의 대상이 되는 불의한 사람들 중 한가지로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사용된 아르세노코이타이(*arsenokoitai*)는 영어성경에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동성애 행위를 하는 남자들’ (ESV), ‘남자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KJV), ‘동성애자들’ (NASB), ‘동성애행위를 하는 자들’ (NIV).⁵⁷⁾ 이처럼 영역 성경에는 이 단어를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와 관련된 죄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디모데전서 1장은 거짓교리를 경고하면서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목적임을 보여 준다(딤후 1:5).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 볼 때, 성경은 동성애를 확실히 죄로 말하고 금지한다. 복음주의상담에 있어서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동성애에 대한 바른 복음주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음주의 상담사역을 통하여 동성애자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3.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

먼저, 동성애 이슈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의 입장은 첫째,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며, 후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둘째, 동성애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셋째, 동성애는 성중독이며, 인간본성의 타각의 결과라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다음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56)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77-88.

57) DeYoung,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79-80.

1) 사랑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를 만나기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성경적 입장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정죄해서는 곤란하다. 동성애자들도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입장은 동성애 문제가 이제 비로소 거론되고 있는 정도이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증점을 두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소외 받는 이들' 이라는데 무게를 두는 경향이 높다.⁵⁸⁾

교회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하여 비난과 혐오의 관점으로 대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들은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수용과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동성애 집단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경이 인간의 성욕, 사랑, 우정, 성의 절제 등에 관하여 말하는 바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성적 정체성은 기도, 성경 말씀의 묵상, 성적으로 자극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을 피하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나 상담자와 대화하고자 하는 습관 등을 통해서 이루질 수 있는 것이다.⁵⁹⁾

오윤선은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기독교청소년의 행복감과 우울 및 불안에 대한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담자를 만나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을 제공할

58) 최양희, “동성애자에게로의 접근 -목회상담적 입장에서-”(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48.

59)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 이해련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서울: 두란노서원, 1984), 460-462.

때, 내담자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회복과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마무리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준비단계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자기이해, 자기수용이 있고, 실행단계에서는 성경인물들의 청소년 시절 탐색, 대표감정과 몰입지수 함양하기, 낙관성 키우기, 감사하기, 사랑과 관계지수 높이기, 용서하기, 소망나무 키우기, 마무리단계에서 충만한 삶 살아가기, 지속적으로 행복지수 높여가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동성애집단에도 적용한다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⁶⁰⁾ 이것에 대한 경험적 입증은 다음연구과제 남겨두기로 하겠다.

동성애적 충동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들의 동성애적 성향을 인정하기를 망설인다. 이처럼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대하여 홀로 고민하기 때문에,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그들의 성적인 경향을 합리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교회와 복음주의 상담자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하기

동성애의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 부모와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거절이 있는 가정에서 발생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동성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만족스럽다면 이성자녀와 심리적으로 적대관계에 놓이지 않게 된다.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자신의 성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60) 오윤선, “행복감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기독교청소년의 행복감과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2호(2014): 213-246.

남성의 경우 아버지와 따뜻한 정서적인 관계를 가져온 자녀들은 동성연애자가 되지 않는다.⁶¹⁾

1962년 Bieber의 연구에서 106명의 게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모두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동성애의 원인은 아동기의 갈등에서 비롯된 무의식적 불안이며, 이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동성애의 치료라고 보았다.⁶²⁾ 이러한 정신분석적 관점이 동성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동성애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동성애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3) 교회공동체가 사랑으로 받아주기

동성애자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다. 크리스찬이면서 동성연애자인 남성과 여성의 고백을 들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의하여 죄와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제되었으며, 성령의 내재하는 능력에 의하여 이전의 동성연애의 속박으로부터 풀려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적 지향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호소하면서 내적 고통이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함께 지속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들 중의 약 50여명이 “국제엑소더스”라 불리는 단체에 가입해 있다.⁶³⁾

61) P. Wyden & B. Wyden, *Growing up Straight* (New York: Stein and Day, 1968).

본서는 동성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모의 영향에 대하여 재미있게 쓰여진 책이다.

62)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131-132.

63) John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박영호 역,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CLC, 1997), 440. 국제엑소더스는 동성애로부터의 자유를 목적으로 남녀 모두를 지원하는 기독교 컨소시엄 단체이다.

Elizabeth R. Moberly 박사는 “동성애적 지향은 유전적 기질과 호르몬의 불균형 또는 비정상적인 학습과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들, 특히, 어린 시절의 어려움들 때문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동성연애자는 동성의 부모와의 관계를 매개로 이런 결핍을 보상하려는 상대적 욕구가 있다”고 하면서 동성연애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이며 충족 못한 욕구의 상태이다.⁶⁴⁾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을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마치 부모와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⁶⁵⁾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은 무조건적 사랑,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대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온전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들을 받아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동성애가 성경이 명백히 금하는 죄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공동체가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받아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과 성령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동성애자들도 육체적, 심리적 이상에서 치유를 받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동성애자를 교회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동성애자들을 위한 복음주의 목회상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4)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믿어주기

64) Elizabeth R. Moberly, *Homosexuality: A New Christian Ethic* (England: James Clarke, 1983), 2.

65) Moberly, *Homosexuality*, 35-36.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셨다(엡 1:4).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이다. 구원은 성부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그리스도에 의하여 실천되었으며, 하였으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서 이루신다.

죄사함은 죄를 간과 하는 것이 아니며, 죄책을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치루고 얻는 것이다(마 26:28). 용서란 죄를 간과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더 이상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용서는 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죄를 무조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예수그리스도는 용서의 모범이 되신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다. 인간에게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다.⁶⁶⁾

구속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죄의 용서와 함께 필요한 것이 회개이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 되어야 한다. 복음이 증거 되는 곳에 믿음과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은 고백이 중요하다. 고백은 내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해를 당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해야 한다. 먼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⁷⁾ 고백은 단순히 마음을 깨끗케 하는 것이 아니라 회목을 이루

66) 전형준, 『성경적상담학』(서울: 대서, 2012), 27.

67) 전형준, 『성경적상담학』, 175-176.

는 것이다. 따라서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켜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주의 상담의 목적이다. 이것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상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악된 삶의 유형이므로 목회상담자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동성애라는 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고통당하는 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안에서 회복되고 완전케 된다.⁶⁸⁾ 이를 위해서 복음주의 상담자는 첫째,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동성애자가 동성애의 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피하고 삶의 습관을 다시 재구성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동성애자는 동성애가 그의 삶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단호히 버리도록 도와야 한다.

탈동성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요나 목사⁶⁹⁾를 들 수 있다. 이요나 목사는 사춘기 시절부터 43년간 동성애자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68) 전형준, 『성경적상담학』, 164-165.

69) 이요나 목사는 1948년 김포에서 태어나 43년간 동성애자로 생활하였다. 청년시절부터 연극, 뷰티살롱, 카페일하우스를 경영하며 사회진출을 꾀하였으나 성적갈등으로 도산 후 승려가 되려고 할 때, 아들이 동성애자임을 아신 어머니의 자살로 폐인처럼 살았다. 서른 살에 리애마라는 이름으로 커밍아웃하여 한국최초로 트랜스젠더클럽인 '열애클럽'을 열어 사업상 성공하였으나 어머니를 향한 죄의식으로 고통하던 중 지인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였다. 88 올림픽이후 범죄와의 전쟁으로 운영하던 4개 클럽이 폐쇄되자 동경으로 들어가 다시 열애클럽을 시작하던 중 죽음에 이르는 영적고통으로 ACGI신학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갈보리체플 교수를 만나 성경에 심취되어 말씀생활로 헌신하던 중, 43살 7월 4일 신학교 강의시간에 성경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탈동성애 하였다. 현재는 성경적상담운동과 탈동성애기독교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듣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탈동성애 인권단체인 홀리 라이프를 통하여 동성애 치유상담사역과 에이즈 감염자 돕기, 탈동성애 기독교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리아마마 동성애탈출』⁷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성령체험 이후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다. 무엇이 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온전함이 느껴졌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삶속에서 체험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이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의 무리가 나를 향해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실바람이 손뻐를 치며 지나가는 것 같았다. 평안의 감동이 심장 한복판에서 틀을 잡고 있었다.⁷¹⁾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체험이후 자신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⁷²⁾라고 하는 성경적상담의 관점에서처럼, 그는 성경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그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주체가 되는 분이시다.⁷³⁾ 이것을 신뢰하고 상담사역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복음주의 상담자는 동성애자가 사람을 재구성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동성애가 그의 모든 생활, 즉 가정생활, 직장생활, 건강한

70) 이요나, 『리아마마 동성애탈출』 (서울: KINEMA iN Books, 2015).

71) 이요나, 『리아마마 동성애탈출』, 123.

72) Paul D. Tripp, *War of Wor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Co., 2000), 251.

73) 성경말씀을 도구로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에 관한 연구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전형준, “자살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대책”,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2호(2014): 275-300.

생활, 경제생활에 총체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회상담자는 먼저 동성애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⁷⁴⁾ 둘째, 각 영역에 관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내담자를 깊이 알아야 한다.⁷⁵⁾ 이때 동성애자의 말을 경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 직면이다.⁷⁶⁾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처럼, 동성애가 죄악임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고 모든 일상을 재구조화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요나 목사도 일본의 히라노 코오이치 목사에게 이러한 직면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앞에 선 히라노 코오이치 목사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오늘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고 고백하였다. 히라노 목사는 나를 부동켜안고 손을 얹어 “이제 네 몸은 성령의 전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도 하셨다. 주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그날에 드디어 나는 43년간 사슬에 매였던 동성애의 더러운 영에게서 벗어나게 되었고,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남자의 위대함을 스스로 체감하게 된 것이다.⁷⁷⁾

위의 고백에서 나타난 것처럼, 히라노 코오이치 목사는 이요나 목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그에게 “이제 네 몸은 성령의 전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요나 목사는 그 말씀이 주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는 43년간 사슬에 매였던 동성애의 더러운 영에게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75) Paul 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Co., 2002), 168-170.

76)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200.

77) 이요나, 『리아마마 동성애탈출』, 120-121.

성령은 목회상담자를 사용하셔서 내담자를 변화시키신다. 특히,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담자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직면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도록 지도해야하며 상담자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⁷⁸⁾ 더 나아가 동성애자가 이성과의 결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의 삶을 배우고 그것을 표현하는 삶을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5) 존중, 경청, 초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기

동성애는 성 중독의 한 모습이다. 바람직한 교회는 이러한 동성애 성 중독자와 함께 하려고 할 것이다. 교회는 어느 면에서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이다(마 11:28; 22:9; 사 55:11).⁷⁹⁾ 교회의 과제는 모든 단계의 죄인들을 돕는 것으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성애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사연을 알아가기 위해 경청하며, 교회공동체로 초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어 함께 변화되어 나가도록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된다(눅 6:43-45).⁸⁰⁾ 사람은 감정 또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믿음과 순종 가운데 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며, 육신의 쾌락을 좇아 동성애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 평안, 사랑, 희망, 감사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쾌락을 추구하며 그 욕구가 달성될 수 없고 무력해진다면, 우리는 슬프고, 쓰라리고, 우울하고, 화내거나 두려울 수

78)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242-261.

79) Edward T. Welch, *Addiction: A Banquet in The Grave*, 김준 역, 『중독의 성경적 이해』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165.

80) Welch, 『중독의 성경적 이해』, 166-177.

있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는 성중독자의 거듭남을 고려하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어야 하고, 결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⁸¹⁾ 동성애자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으로부터 돌아서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에 '아니오' 라고 거절하며 맹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전 12:14; 히 10:25)로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성애자에게 해를 끼친 사람과 화해하고,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과도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⁸²⁾ 예수께서는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신다고 하셨다.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예배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도록 도와야 한다. 중독자에게 복음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미래에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동성애자는 그 성 중독에서 벗어나 성화되어 갈 것이다.

Ⅲ. 닫는 글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을 논함에 있어서 필자는 동성애에 대한 학분적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적 접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다.

첫째, 사랑의 마음으로 동성애자 만나기

둘째,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사역하기

81) Welch, 『중독의 성경적 이해』, 177-190.

82) Welch, 『중독의 성경적 이해』, 331-380.

셋째, 교회공동체가 사랑으로 받아주기

넷째,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신뢰하기

이에 대한 복음주의 상담자의 구체적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성애자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2) 동성애자는 동성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삶의 습관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3) 동성애자는 동성애가 그의 삶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 죄악 된 사람을 버리도록 도와야 한다. 4) 목회상담자가 동성애자의 삶을 재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돕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존중, 경청, 초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기.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동성애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탈동성애로의 변화를 이룬 상담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 가운데, 건강한 복음주의 상담 사역을 통하여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목회자들과 복음주의 상담자들이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 받아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 탈동성애 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이 계속되길 열망한다.

【 참고문헌 】

- 김영한 외. 『동성애, 21세기문화충돌』. 서울: 킹덤북스, 2016.
-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 편. 『조각하늘 동성애바로알기』.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15.
- 오윤선. “행복감 증진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기독교청소년의 행복감과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2호(2014): 213-246.
- 윤가현.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1.
- 이요나. 『리애마마 동성애탈출』. 서울: KINEMA iN Books, 2015.
- 전형준. 『성경적상담학』. 서울: 대서, 2012.
- 전형준. “자살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대책”.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2권 2호(2014): 275-300.
- 최양희. “동성애자에게로의 접근 -목회상담적 입장에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 AP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II*.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Westminster, MD.: Christian Classics, 1981.
- Bahnsen, Greg L. *Homosexuality: A Biblical View*. 최희영 역. 『성경이 가르치는 동성애』.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0.
- Balanchard, R. & A. F. Bogaert. “Homosexuality in Men and Number of Old Broth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1996): 27-40.
- Bailey, J. M. & R. Phillard. “A Genetic Study of Male Sexual Orienta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48(1991): 1089-1100.
- Boswell, John.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Byne, W.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er, M. A. Edgar, S. Mogello, M. S. Bucksbaum, & L. B. Johnes. “The Interstitial Nuclei

- of the Human Anterior Hypertalamus: An Investigation of Variation with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2001): 86–97.
- Cameron, P., T. Lendess & K. Cameron. “Homosexual Sex as Harmful as Drug Abuse, Prostitution or Smoking.” *Psychological Reports* 95(2005): 915–936.
-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 이혜련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서원, 1984.
- Coleman, Peter. *Gay Christian: A Moral Dilemma* (London: SCM Press, 1989).
- Cotton, John. *An Abstract or the Law of New England* (London, 1641): 10–25.
- DeYoung, Kevin. *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about Homosexuality?*. 조계광 역, 『성경이 동성애에 답하다』. 서울: 지평서원, 2015.
- Drabant, E. M. A. K. Kiefer, N. Eriksson, J. L. Mountain, U. Francke, J. Y. Tung, D. A. Hinds, & C. B. Do.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Sexual Orientation in a Large, Web based Cohort.” Presented at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nual meeting Nov. 6–10. San Francisco, 2012.
- Gordon, S. & C. Snyder.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Allyn & Bacon, 1986.
- Greenberg, David F.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Hamer, D. H., S. Hu, V. L. Magunuson, N. Hu, &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1993): 321–350.
- Hays, Richard B. “Relations Natural and Unnatural: A Response to John Boswell’s Exegesis of Romans 1.” *Journal of Religious Ethics* 14, no.1(1986): 200–225.
- Jones, S. L. & M. A. Yarhouse “Science and Ecclesiastical Homosexuality Debates.” *Christian Scholar’s Review* 26, no.4(1997): 446–465.
- Karlen, Arno. *Homosexuality: A New View* (New York: W. W. Norton, 1971).
- Kendler, K. S., L. M. Thornton, S. E. Gilman, & R. C. Kessler. “Sexual

- Orientation in a US National Sample of Twin and Non-twin Sibling Pai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2000): 1843–1865.
- Kleist, James A. *Ancient Christian Writers*. Vol 6. Eds. Johannes Quasten & Joseph C. Plumpe. New York: Paulist Press, 1948.
- Kwan, M., W. J. Greenleaf, J. Mann, L. Grapo, & J. N. Davidson. “The Nature of Androgen Action on Male Sexuality: A Combined Laboratory Self Report Study Hypergonadal Men.”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57(1983): 577–596.
- Langstrom, N., Q. Rahman, E. Carlstrom, & P. Lichtenstein.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Same-sex Sexual Behavior: A Population Study of Twin in Swede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2010): 75–92.
- Laumann, E. O., J. H. Gagnon, R. T. Michael, & S. Michaels.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4.
- Levey, S. “A Difference of Hypotalamic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1991): 1034–1055.
- Luther, Martin. *Lectures on Genesis: Chapters 15–20: Luther’s Works*. Vol. 3. Trans. George V. Schick. Ed. Jaroslav Pelikan. St. Louis: Concordia, 1961.
- Meyer-Bahlburg, H. F. L. “Psychoendocrine Research on Sexual Orientation: Currant Status and Future Options.” *Progress and Brain Research* 61(1984): 375–396.
- Moberly, Elizabeth R. *Homosexuality: A New Christian Ethic*. England: James Clarke, 1983.
- Murphy, T. F. “Redirecting Sexual Orientation: Techniques and Justifications.” *Journal of Sex Research* 29(1992): 501–525.
- Murry, John.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7.
- Mutanski, B. S., M. G. Dufree, C. M. Ni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2005): 27–47.
- Powlison, David A. *Speaking truth in Love*. Greensboro, NC.: New Growth Press, 2005.
- Ramagoparan, S. V., D. A. Dymant, L. Handunnetthi, G. P. Rice, & C. G.

- Ebers.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2010): 135–156.
- Rice, G., C. Anderson, N. Risch, & G. Eber.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1999): 665–685.
- Sanders, G. & M. Wright. “Sexual Orientation Differences in Cerebral Asymmetry and in the Performance of Sexually Dimorphic Cognitive and Motor Task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1997): 463–486.
- Satrnover, Jeffrey. *Homosexuality and the Politics of Truth*. Grand Rapids, MI.: Baker, 1996.
- Stott, John.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박영호 역.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CLC, 1997.
- Tripp, Paul 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Co., 2002.
- Tripp, Paul D. *War of Wor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Reformed Publishing Co., 2000.
- Welch, Edward T. *Addiction: A Banquet in The Grave*. 김준 역. 『중독의 성경적 이해』.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Wenham, C. “The Old Testament Attitude to Homosexuality.” *The Expository Times* 102(1991): 350–375.
- Wright, David F. “Homosexuals or Prostitutes? The Meaning of *Arsenokoitai* (1 Cor. 6:9; 1 Tim 1:10).” *Vigiliae Christianae* 38, no.2(1984): 120–135.
- Wyden, P. & B. Wyden. *Growing up Straight*. New York: Stein and Day, 1968.
- Grants, Stanley. J. *Welcoming but not Affirming*. 김대중 역.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6.
- Wilson, E. *Counseling & Homosexuality*. 남상인 역. 『동성연애상담』. 서울: 두란노, 1996.

【 Abstract 】

Approach to Homosexuality from an Aspect of Evangelical Counseling

Hyung Joon Jun & Yoon Kyung Kang

Baek Seok University

The issue of homosexuality has now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Korean society and Korean church. This study set the research question as follows and contemplated on them from an aspect of reformism pastoral counseling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evangelical counseling approach to homosexuality. First, what is the general understanding about homosexuality? Second, what is the biblical understanding about homosexuality? Third, what is the approach to homosexuality from an aspect of evangelical counseling?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study results. First, as for the general understanding about homosexuality, consensus in the academic circles of psychology was that it sees homosexuality from a social perspective, rather than viewing it as a sin and acknowledges it with an emphasis on human right. Second, as for the biblical understanding about homosexuality, it was confirmed that homosexuality is regarded as an obvious sin and is prohibited. Finally, the approach to homosexuality from an aspect of evangelical counseling includes the following: 1) meeting homosexuals with the mind of sympathy; 2) church should be in charge of family ministry who serves them as healthy family; 3) it is important for church community to build trust with love; 4) belief in the change that the Holy Spirit gives. 5) respected listened to, invited and I pulled as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Key words: homosexuality, evangelical counseling, mind of sympathy, family ministry, Holy Spirit